

보험산업의 Think Tank

# 보험연구원 연차보고서

---

## 『2024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2024년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의 완화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큰 파고가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ChatGPT로 촉발된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 진보 속도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은 보험산업이 어려운 경제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ESG 경영, 디지털 전환,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가올 미래 변화가 보험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부의 연구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문위원회, 산학연구센터, 각종 세미나와 포럼, 여러 보험·금융학자 또는 전문기관과의 위탁 또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다양한 보험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내 의사결정자와의 시장현안 소통수단으로 CEO Brief, CEO Report 발간을 활성화하고 일반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영상 간행물로 제작하여 연구성과물을 공유·확산하고자 하였으며, 기고 및 인터뷰 등 활발한 언론·홍보활동을 통해 보험산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이 시장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보험연구원장

안철정

## I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2
Chapter 2	2024년 보험산업 과제	3

## II

### 2024년 주요연구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6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	8
Chapter 3	사회안전망	10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12

## III

### 2024년 정기간행물

Chapter 1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6
Chapter 2	CEO Report   CEO Brief	18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이슈분석)	24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이슈분석)	33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36
Chapter 6	KIRI 영상자료	38

IV

2024년 대외활동

- Chapter 1 KIRI 세미나 ..... 42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48
- Chapter 3 KIRI 보험법세미나 ..... 51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52

V

2024년 일반현황

- Chapter 1 경영비전 ..... 58
- Chapter 2 연혁 ..... 58
- Chapter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59

##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슈보고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KIRI 영상자료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 해외보험리포트

격월 연 6회 신흥 및 선진 보험시장에 해당하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 Korean Insurance Industry

보험산업의 환경, 제도, 동향, 주요 경영실적을 연 1회 영문으로 소개

I

2024  
연차보고서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Chapter 2      2024년 보험산업 과제



##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2024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서 '더 낮은 저성장·상대적 높은 금리·물가'의 새로운 균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초과저축 감소 및 소비여력 위축은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2010년 대부터 3%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15% 이상의 노인(65세 이상) 비중을 경험하면서, 1990년대에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2015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전대미문의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2020년 들어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 등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은 더 낮은 저성장과 환경 변화 지속이 예상되므로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성과가 경제·금융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 증가, 취약계층의 고용·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라 경제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2. 2024년 보험산업 과제

2024년은 더 낮은 저성장과 환경 변화 지속이 예상되므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도 내실 강화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인구변동·기후변화·디지털화의 환경요인을 외연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더불어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라는 연구 목표를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확장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혁신성을 위해 임베디드 보험, 데이터 이용, 판매채널의 미래 등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및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연구를, 확장성을 위해 저성장에 대응한 해외 진출, 인구변동에 대응한 퇴직연금 활용 등 환경요인을 외연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부통제제도, K-ICS 영향 분석, 자산운용 경기순응성 등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인구·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산업의 역할, 고령사회 소득과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를, 환경 변화 측면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2024  
연차보고서

## 2024년 주요연구과제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
- Chapter 3 사회안전망
-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 연구

임준(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보고서

2024년 향후 고령시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현재 50~60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태와 주요 니즈를 분석한 설문조사와 해외의 고령자 특화 사업자 및 고령자 특화 전문 인력 사례 조사를 통해 3가지 사업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한다. 둘째,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조직 내에 보강한다. 셋째,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의 투자를 위해 고령층 특화 벤처 캐피탈을 설립한다.

### 차량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회사 시사점

천지연(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

보고서

커넥티드카가 성장함에 따라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차량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UBI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의 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 개선방안과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차량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차량데이터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

보고서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을 편입하여 제도의 내실화와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가 단체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미국이 DB형 연금에서 401(h) 계좌를 활용하여 의료(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일본이 적립식 상해보험으로 장애 및 사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장성 보험을 자산운용에 포함시켜 퇴직연금 자산의 노후 생활 활용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에 대비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선진화방안 연구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서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시 보험회사가 직접·무과실책임을 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책임규정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법인보험대리점, 플랫폼 등 판매채널의 규모·독립성에 따라 불완전판매 시 배상책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책임법제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비용을 줄이는 효익을 가져와야 하며, 판매채널의 내부통제·정보공시 강화 및 채널 간 건전한 경쟁이 유도되어야 한다.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임베디드 보험의 사업모형 사례

이정우(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임베디드 보험은 비보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없던 보험형태는 아니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확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주요 사업 모형으로는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협력하는 모형, 핀테크가 중개자로 개입하는 모형, 핀테크가 직접 비보험 상품과 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형이 있다. 임베디드 보험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험소비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소비를 위한 적절한 규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024 해외보험리포트 종합편

정성희(선임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김성균(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김연희(연구위원)·  
손유영(연구위원)·유성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보고서

본 보고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상 6개 유럽 국가의 보험제도 및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보험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국가 및 보험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국가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보고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향후 제도개선·보완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백영화(선임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최근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판례에서는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방수공사비용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넓게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행태의 순응성 분석

박희우(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는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유동성, 자본 적정성 등 재무 상태가 자산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자본 규제 방안의 검토, 유동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이 있다.

###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노건엽(연구위원)·김세환(부장)·이승주(연구위원)

보고서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가 RBC에서 K-ICS로 2023년부터 변경되었다. K-ICS는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제도 변경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구성을 살펴보고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률 등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험산업은 제도 변화에 따라 자본관리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조건부 자본증권, 만기 30년 국채선물, 내부모형 적용 등 K-ICS 시행으로 활용가능한 자본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자기신체사고 사례

전용식(선임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원료 체감률 조정 등 진료수가 일원화, 치료목적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의 제도개선, 비급여 진료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의 은행과 보험회사의 PBR과 실질 지급능력

최성일(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

보고서

은행과 보험회사에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인 PBR의 결정 요인을 살핌으로써 은행의 혁신과 유연한 배당정책의 필요성과 IFRS17 정착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회사 수익지표의 유의성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Chapter 3. 사회안전망

###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오병국(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보고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편의성 및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혁신을 통한 효용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법 및 규제 공백, 금융 취약계층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당국과 금융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이은영(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이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발달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를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 영역을 검토하였다. 장애인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라 증가할 배상책임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한 중·노년기 소득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특수지원신탁을 제공하는 한편,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비 급여화 등 공적 조기개입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민영 부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보험회사의 노인주거서비스 제공방안

송윤아(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보고서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산층 고령자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일본 사례를 검토하여 중산층 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과 보험회사의 전략을 제시한다. 요양 및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이나 임대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둔 장기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사업으로, 초기비용 절감이나 진입장벽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주택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가 생명보험상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경선(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보고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는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온열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건강 및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상승 및 재정 건전성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 계약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온 상승이 입원 및 사망 담보 사고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 기후 데이터를 반영한 보험상품 설계, 생명보험상품 갱신주기 단축 등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 Chapter 3. 사회안전망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자연재해 위험 인수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승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의 빈도 및 심도 증가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적응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는 기후 취약성 완화와 신속한 복구를 돕는 기후 회복력 강화로 나누어 접근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고유한 사업모형인 위험인수와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연재난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공·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손성동(한국연금연구소 대표이사)

보고서

퇴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출단계에 대한 제도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도적 측면은 연금수령 요건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 디폴트화, 맞춤형 정보 제공, 환경적 측면은 퇴직연금 통계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비교공시 강화가 필요하며, 경영적 측면은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2024 Survey of Collegiate Education in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Globally: Commitment and Exposure

권육진(St. John's University 교수)

보고서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RMI) 교육의 현황을 보고하며,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학생,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험교육의 위험과 기회. 보험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산업 주도, 고등 교육 기관 주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 등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Survey 분석한 결과, 대학 수준의 RMI 교육의 안정성과 성장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헌신과 인지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은 교육자와 실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나타나며, 인지도로 이어진다. 인지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업계와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보험서비스의 질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인지도는 다음 세대가 보여줄 헌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보험업권 리스크감시모형 개선

조영현(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보고서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은 부모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업권별로 운영하고 있음.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K-ICS)가 도입되어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감시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회계제도에어서 생산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된 보험회사 리스크감시모형(리스크평가, 리스크예측, 리스크지수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금저축 수익률 산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박희우(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연금저축상품은 단일 산식으로 산출되는 수익률로 비교공시 되고 있지만, 가입자의 중도인출금액이 큰 경우 수익률이 과대표시되는 왜곡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연금저축상품은 운용 구조 및 특성이 매우 상이하어 상품 단위의 정확한 운용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산식을 정의하기보다는 동일 유형군 내에서 제시되는 상품 간 운용 효율성의 비교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보험사의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보고서

보험회사는 고령자 주거시설 운영에 있어 독립경영, 마스터리스,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요양·주거서비스를 기반으로 특화 보험상품과 비용 보장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선지급 특약을 제공함으로써 요양·주거서비스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정성희(선임연구위원)·김규동(연구위원)·김연희(연구위원)

보고서

건설공사 관련 대형사고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건설공사 관련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해 있으며, 건설공사의 사고 및 관련 피해는 타업종에 비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 보상 확대 및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및 '건설사의 안전·품질 관리 향상'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 도입, 입주지역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보상, 위험진단보고서 활용 확대 등의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지정 목조문화유산(국보·보물 등) 화재보험 등 도입에 관한 연구

이승준(연구위원)·김진역(수석연구원)·김성균(연구원)

보고서

목조문화유산은 각종 자연재해와 특히 화재에 취약하여 관리와 보존에 더욱 관심이 요구되며 일단 훼손되면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문화유산은 수리와 방재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구를 위한 안정적 지원, 위험 평가와 사전 예방, 지속가능성 확보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목조문화유산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일반국도 포장파손(포트홀) 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김석영(선임연구위원)·장동식(수석연구원)·김연희(연구원)

보고서

일반국도 포장파손으로 인한 사고에서의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배상심의 또는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고속국도 또는 특별시도의 포장파손으로 인한 사고에서의 피해자는 포장파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도 포장파손 사고에 대한 현황 및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포장파손 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행방안 등 일반국도 포장파손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IFRS17 기초가정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에 관한 법적체계 연구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원)·유성현(연구원)

보고서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스스로 산출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면서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IFRS17 기초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필요한 기초가정의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한 사례는 없으나 국내 감독기준에서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차원의 실무 표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실무적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

###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 추정

변혜원(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보고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건을 포함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과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험사기 규모는 2018년 보험사기 추정 금액에 비해 약 4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연평균 증가율 7.1%). 전문화·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정보분석 고도화, 보험사기 수사 전문성 강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드론 보험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천지연(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보고서

상업용 드론의 의무화, 드론시장의 성장 등으로 드론보험시장 규모도 동반 확대되면서 드론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현 드론보험상품 및 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드론보험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 드론보험의 운영 현황, 국내외 드론 제도 및 보험상품 분석을 통해 국내 드론 운용 및 보험상품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한다.

### 무저해지보험상품의 해지율에 관한 연구

노건엽(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보고서

현행추정가정에 기반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해지율 가정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저해지상품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캐나다, 일본, 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상품 검증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보험요율 및 위험률 외부검증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해피콜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개선방안 용역

양승현(연구위원)·백영화(선임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보험업권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인 해피콜은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상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를 거듭 부과하는 것은 수범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식될 수 있고 제재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는바 해피콜 제도 및 위반 시 금전제재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피콜 위반 시 금전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24  
연차보고서

# 2024년 정기간행물

- Chapter 1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Chapter 2 CEO Report | CEO Brief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이슈분석)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이슈분석)
-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Chapter 1.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5년 경제 및 금융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완화 등으로 설비투자자 및 민간소비는 증가하지만, 상품수출 및 건설투자는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는 2024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말 국채 10년물 금리는 2%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으로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우려는 상방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 또는 검토 중인 ‘할인율 현실화 방안’, ‘보험개혁회의’ 등의 제도개선은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시행은 K-ICS 할인율을 더욱 하락시키고, 보험개혁회의의 주요과제 중 상품구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제도개선은 보험료, 부채평가, 당기순이익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2025년 보험산업을 전망해 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악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 2025년 보험산업의 전체 보험료는 2024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2.4%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 해지율 증가 등은 보험산업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회사별 영향은 상품 및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수준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금리 하락 및 해지율 상승 등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장성 둔화는 보험계약마진 성장을 둔화를 통해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는 이익유보를 통한 자본확충을 어렵게 하여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건전성 악화는 보장여력을 약화시켜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인 미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하락 우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변화, 기술혁신, 기후변화라는 경영환경의 중장기적 흐름은 보험산업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재무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성향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소비자와의 접점과 함께 기업 내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는 재해 위험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히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Chapter 1.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러한 경영환경의 중장기적 흐름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확장성,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시장에 국한된 사업모형을 금융·비금융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보험계약자 자산의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 역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 간병, 주거,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하고 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역동성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면채널과 디지털채널의 장점을 결합한 융복합채널 도입 등 보험회사가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 확대에 대응하여 인수역량을 확대하고 계층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협력을 통한 포용적 보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건전성 약화에 대응하여 선제적 부채관리 등 자본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손재희(연구위원)·이정우(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1호 | CEO Brief 제2024-06호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AI와 차별화된다. 현재 국내외 보험회사는 업무지원·고객관리 등에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AI 위험 보장이라는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 AI 역기능의 증가로 마련된 다양한 규제는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확보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이며 더불어 AI 환경하 보험업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균형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김경선(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2호 | CEO Brief 제2024-09호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계층별 건강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건강권 실현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기후 관련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 위험 감축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후 위험 관련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 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3호

2024년 7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임원의 범위 및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 준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 재제출 사유를 적절히 제한하며, 규제 비례성 측면에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최성일(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4호 | CEO Brief 제2024-14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개인 간 전세제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인플레이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장기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낮은 수익성, 지급여력비를 악화, 전문성 부족, 평판리스크 우려,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참여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임준(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5호 | CEO Brief 제2024-15호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플랫폼 사업자 전략 추진이다.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고령층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조직 내에 보강한다.

###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최창희(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6호 | CEO Brief 제2024-16호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결과, 먼저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I): 보험모집

김동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7호 | CEO Brief 제2024-17호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성, 대면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이나,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수수료 체계는 시장질서 훼손과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보험회사가 판매 과정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업관행 개선과 함께 인구·기술 등 시장의 환경 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모집규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수단의 수용성·안정성·효과성을 고려한 감독당국의 선별적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

###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II): 보험금 지급

변혜원(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4-08호 | CEO Brief 제2024-18호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보험회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므로, 보험금 지급 과정은 보험판매 과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보험신뢰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신뢰 약화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교육 강화,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도구 제공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손해사정 시 의사소통 개선,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강화, 의료자문기관 선정 및 공시 개선 등 손해사정과 의료 자문에 대한 신뢰성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황인창(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원)

CEO Report 제2024-09호 | CEO Brief 제2024-20호

내년에도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생·손보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금융 및 규제 환경 등 경영 환경이 보험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험상품 판매 관행,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이에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장에서의 영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사업모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금리 하락 시기 경험과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1호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우 첫째, 장·단기금리가 상승하던 시기 대부분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항상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라졌다. 셋째,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 고점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점을 선행하였는데, 이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시작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과거와 달리 예상보다 빠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백영화(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2호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한편 법 개정과 별도로, 실제 보험사기의 처벌 및 제재에 있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감축·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

### 금리 하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노건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3호

국내 국고채 금리는 2023년 4% 이상 상회하였으나 최근 3% 초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이익을 증가시키나 장기적인 투자수익성 악화, 신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감소,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회사는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상품판매를 통한 보험계약마진 확보,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한 위험감감기법 적용 등 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다양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

최성일(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4호

부동산PF 대출의 규모 및 특정 금융권역 집중 정도가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책이 금융안정에 치중하고 시장참여자 또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에 소극적이어서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유인체계를 마련하되, 급격한 부동산PF 부실이 실현될 경우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진작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과 과제

최성일(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5호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 문제 극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백영화(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7호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송윤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08호

2024년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8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치매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민영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이 16%에 이를 정도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크다.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개인의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협력,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김석영(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10호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는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낮은 인식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된다. 중소기업 보장 공백 해소와 손해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 컨설팅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

양승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11호

2024년 7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임원의 범위,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무구조도 제제출 요건 및 제재 감면 규정을 합리화하며, 책무구조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 내지 모범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 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김경선(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12호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併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다.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박희우(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13호

저성장의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보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겨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비즈니스다각화, 사회 후생 증진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일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와 투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과 이슈

손재희(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19호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AI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하는 방식과 소비 경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생성형 AI 적용은 사내 운영 효율화에 우선 적용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이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의 적용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동시에 활용에 따른 다양한 잠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인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

강성호(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21호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조정하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초연금,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등과 연계하여 세대 간 공정성과 균형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문제영(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22호

제47대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 이에 미국 및 국제 금융시장은 주가, 장기금리, 달러 가치, 가상자산 가치 등이 상승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또한 무역수지 악화, 국내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김경선(연구위원)

CEO Brief 제2024-23호

비급여 항목은 공·사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야기하는 가운데, 의료개혁 특위는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제공 및 심사 강화, 병행진료 제한 등을 통해 비(非)중증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와 수준을 보건정책과 연계하여 합리화하고, 요율 정상화를 위해 신상품 최초 요율조정주기를 단축(예: 현행 5년 → 3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K-ICS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

노건엽(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90호

K-ICS는 모든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수준을 잘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나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책과 함께 국내 상황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96호

내부통제 강화, 법규위반의 적발 및 처벌강화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 법규준수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주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회사 내 개인들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금융회사의 집단문화나 사회적 규범 또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선택 현황과 수익률 평가: 퇴직연금 사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강성호(선임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97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은 2023년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 5,520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초저 위험(89.9%) 중심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적립금의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험 업권에서 가장 높았으며, 위험상품 수익률에 대한 위험관리(표준편차)도 보험업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수익률은 위험수준과 무관하게 보험업권에서 높았는데, 이는 동 제도의 수익률이 업권의 특성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요인 분석

천지연(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98호

자동차보험의 사업 실적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중심으로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성 여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당경과보험료 및 사고심도는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 사고 빈도는 주로 손해율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사고심도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전체 손해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정 수준의 손해율 유지를 위해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요율 산정, 보험금 누수 억제 등을 위한 환경 및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여성 특화 건강 위험

김석영(선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김성균(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99호

과거에 비해 여성의 보험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및 보장 수요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최근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상품 유형에서 여성 특화 보험상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여성 특화 보험시장은 여성의 보험 가입 수요가 높아지고, 최근 출시된 여성을 위한 보험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밝은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주담보 중심의 여성 특화 보험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장담보 및 가격 측면에서 상품의 효율성을 높여 여성 특화 보험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UBI(Usage-Based Insurance) 상품 현황과 과제

천지연(연구위원)·임석희(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0호

국내외 주요 보험회사들은 UBI(Usage-Based Insurance)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주행거리 할인 또는 안전운전 할인 특약 등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요율에 적용하고, 비교적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UBI 시장은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험료 할인이 안전운전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0호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도입 이후에도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특성, 책임보험의 상품 구조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부재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기준 마련과 책임보험 개선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김규동(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1호

저출생 극복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검토가 가능하다.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보완형으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임신·출산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는 임신·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 가능하므로, 질환 보장 중심의 보험상품이 가장 현실적인 보험상품이라고 판단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4호

최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비중 및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높다는 점,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강화된 음주운전 재발방지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포용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고위험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4호

동승자 여부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음주운전 사고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K-ICS 할인율과 보험회사 자본관리

노건엽(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5호

K-ICS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할인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있다. 국고채 금리의 하락 추세와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이 보험회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회사의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K-ICS 할인율 하락으로 자본이 감소하였다.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추가적인 K-ICS 할인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 감소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배타적사용권 운영실태 및 평가

김석영(선임연구위원)·김성균(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6호

보험산업에서는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생명보험의 경우 총 193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중 152건이 승인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보장공백 해소로부터 소비자 편익이 개선되고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김경선(연구위원)·조재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6호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적보험·민영보험에서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정신질환 보장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신질환의 고유한 특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보험산업 내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상품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및 급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6호

금융포용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금융소외를 경감시키는 과정이다.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포용 사례들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핀테크 기술은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천지연(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7호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사고 건당 수리비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는데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로, 특히 부품비가 건당 수리비 증가를 견인한다. 부품비 상승을 초래한 공급 측면 요인은 국산 및 외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 차량 가격 상승, 부품의 단위 가격 상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부품 교환 비율, 낮은 품질인증부품 사용률 등이 부품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행태의 채권시장 안정화 영향 분석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7호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대응적 투자를 하여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증분석 결과 보험회사, 기금, 은행은 대응적 투자를 하여 채권시장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투신은 순응적 투자를 하여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채권 가격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금리 하락기에 강화된 대응적 투자를, 금리 상승기에 약화된 대응적 투자를 하는 모습이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

김석영(선임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8호

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동재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수보험회사들이 선호하는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회사의 재재보험 시 국내자산 보유 의무 경감, 본사 중개 역할 허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재보험 거래를 위해 미국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하여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9호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지만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 종료일까지의 합의기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인배상 경상환자 치료는 일본에 비해 보편·타당한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는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유럽 보험건전성 제도의 비례성 원칙 체계 개선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09호

유럽집행위원회(EC)는 Solvency II의 적합성 및 단순화를 위해 적용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소형단순보험회사’라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국내 보험환경은 유럽과 달라 Solvency II의 ‘비적용회사’ 기준과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을 단순 적용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향후 소액단기보험회사 등 다양한 보험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본질,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전용식(선임연구위원)·김경선(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0호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비교하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아 비급여가 다소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병원, 그리고 서울지역의 경우 과잉진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염좌 및 긴장 환자에게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잉진료 억제에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적정성 검토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해외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현황과 시사점

이은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1호

국내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제도의 공백 속에서, 실손보험 발달지연 치료비 손해액이 급증하고 보상 범위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발달지연 치료비를 지원 중인 미국, 조세 기반 국가장애인보험제도를 도입한 호주, 의료와 양육을 결합한 지자체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본 등 발달치료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공적 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2호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자 등 비경활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 미국과 호주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면세자 등의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면세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도 노후소득보장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현행 연금세제는 과세이연 중심의 간접적 지원으로 인해 면세자의 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상황이므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정성희(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8호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② 디지털 전환 확대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8호

### 중국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8호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③ 모집시장의 효율성 및 고객가치 제고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9호

### 미국 금리 하락 시기 특징과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9호

###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변혜원(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89호

### Mercer 연금지수와 한국 연금개혁

강성호(선임연구위원)·임석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0호

### 지수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경선(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1호

### 마약류 약물 중독과 보험의 치료 보장

손재희(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1호

###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2호

### ISA적립금의 연금계좌 전환과 보험산업의 과제

강성호(선임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2호

###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3호

###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이정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3호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

박희우(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4호

###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4호

###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오병국(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5호

###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5호

### 지속가능성 공시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이슈

이승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6호

### 코로나19 이후 여행시장과 여행자보험 수요 변화

김규동(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7호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 현황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8호

### 최근 가계 경제 부진의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599호

### IFRS17 시행과 선임계리사 역할 확대

노건엽(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1호

###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2호

### 한미 사이버 사고 정보 공유 환경 비교 및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2호

###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추이와 경기 국면의 연관성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3호

###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3호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과 연금화 정책

강성호(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4호

###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천지연(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5호

###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

김경선(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8호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오병국(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08호

### 최근 혼인 및 출생아 수 증가의 특징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0호

### 외래 침입종 유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

조재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0호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1호

###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현황과 과제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2호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27호

인공지능 시대 보험산업은 인공지능 활용 주체이자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주체로서 보험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 한편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자로서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의 관점에 입각하여 보험법, 책임법, 규제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채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28호

채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채무의 내용 및 배분 방법, 임원의 범위, 작성 방식 및 준수사항, 대표이사과 임원의 관리조치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나 임원의 범위 설정, 금융회사별 채무 판별 방법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충족을 위한 관리조치의 수준 등에 관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내부통제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29호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임원 및 대표이사는 소관 책무에 관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관리조치의 내용을 열거하여 의무이행에 관해 일응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범자가 관리의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 채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0호

최근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는 향후 1~2년 내로 채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데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는 규제준수 부담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금융회사의 규모·유형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바,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가 작아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규제 비례성 확보 및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백영화(선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1호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취득 관련 판례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2호

티눈 치료 목적으로 수천 회 냉동응고술을 받고 여러 보험회사에서 총 30억 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2023년 5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수입 대비 과도한 보험료, 합리적 이유 없는 단기간 다수보험계약 체결, 지나치게 잦고 긴 치료횟수·기간 등 간접사실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인하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라 판단하였다.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이슈분석)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양승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27호

### 2023년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27호

###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편입통제 적용의 문제점

황현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28호

###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28호

###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29호

###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0호

###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1호

###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관한 최근 판례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2호

### 2024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백영화(선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2호



##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해외보험리포트: 호주편

김윤진(연구원)·이소양(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01.22

영상자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호주, 보험시장도 성장 중일까?

유튜브 업로드: 2024.03.12



호주는 천혜의 자연과 세련된 도시가 공존하는 이민 국가로, 인구의 30%가 해외 출생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호주는 30년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왔으며, 선진 금융 국가로서 운용펀드액 세계 5위, 주식시장 규모 세계 11위, 연금체계 선진화 수준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다. 호주의 보험산업은 손해보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시장금리 하락과 소비자 신뢰 약화로 위축되었다. 호주는 외국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외국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 해외보험리포트: 스페인편

이승주(연구원)·장윤미(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04.03

영상자료: 유럽의 관광 & 자동차 강자, 스페인의 보험시장을 알아보자

유튜브 업로드: 2024.05.07



스페인인 세계 2위 관광대국이자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경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DGSFP가 보험산업을 감독하며 외국 법인의 지분 소유 제한이 없고, EU의 지침을 기반으로 규제가 발전해 왔다. 보험시장의 경우 2022년 기준 생명보험이 37.6%,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하며, VidaCaixa가 생명보험산업을 주도하고 방카슈랑스가 주요 판매 채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장례보험상품 비중이 높고 현지 및 외국계 회사가 고루 분포해있으며 주요 판매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해외보험리포트: 이탈리아편

김혜란(연구원)·김가현(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04.30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 보험시장도 명품일까?

유튜브 업로드: 2024.06.27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세계 9위로, 한국과 비슷한 보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 비중이 70% 이상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발전해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를 이원화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보험상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손해보험산업은 침투도가 낮으나 자동차 책임보험 요율의 큰 인상과 2024년부터 기업의 재해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며 유럽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해외보험리포트: 프랑스편

김성균(연구원)·김연희(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07.02

영상자료: 전통의 선진국 프랑스! 프랑스 보험시장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유튜브 업로드: 2024.08.08



프랑스는 2023년 기준 명목 GDP 규모 세계 7위로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 관광, IT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험시장 역시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5위 규모이며, 건전성 자산은 EU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다. 보험산업은 건전성 감독청(ACPR)이 감독하며, 생명보험이 전체 시장의 72.3%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업 중심 구조를 보인다. 보험침투도는 8.7%, 보험밀도는 3,578달러이며, 주요 판매채널은 2022년 기준 생명보험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이다.

### 해외보험리포트: 스위스편

강윤지(연구원)·홍보배(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08.27

영상자료: 신뢰·비밀·중립의 대명사 스위스의 보험시장을 알아보자

유튜브 업로드: 2024.10.24



2022년 스위스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보험시장 구조는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권(45.1%)과 손해보험업권(54.9%)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스위스는 글로벌 재보험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축소된 모습을 보였으나 손해보험시장은 건강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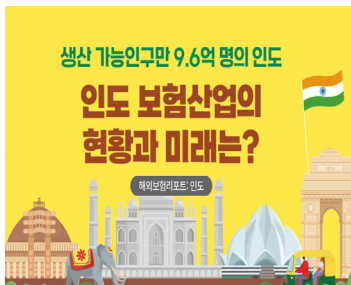
### 해외보험리포트: 인도편

손유영(연구원)·유성현(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4.10.29

영상자료: 생산 가능인구만 9.6억 명의 인도, 인도 보험산업의 현황과 미래는?

유튜브 업로드: 2024.12.26



인도는 인구 수 세계 1위 국가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 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공영 보험회사의 독점 시장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단계를 거치며 점차 개방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모두를 위한 보험' 정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와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개선 과제

천지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4.01.11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보험의 친환경 상품은 주로 탄소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집중되어 있다. 재난별 리스크평가 및 추가 피해보상 상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보험의 경우 중복보장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이슬람금융의 중심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승주(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 해외보험리포트

유튜브 업로드: 2024.02.29



다문화 국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진국 함정에 빠져 '이코노미 마다나'를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은 '금융 청사진 2022~2026'으로 미소보험 확대, 디지털 금융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보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보험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 시장의 3/4를 차지하며, 이슬람금융 기반 타카풀이 주요 특징이다.

###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 2024.03.28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한다. 일본 보험회사는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여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변혜원(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4.04.11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간병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의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선호하는 품질의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과 준비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백영화(선임연구위원), 손민숙(연구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 2024.05.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또한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양승현(연구위원), 박정희(선임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 2024.09.05



2024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도입되어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사점을 얻어본다.

###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천지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4.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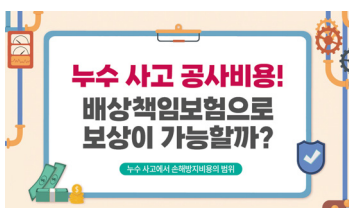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 관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책임규명 분쟁 및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백영화(선임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4.12.04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IV

2024  
연차보고서

## 2024년 대외활동

- Chapter 01 KIRI 세미나
- Chapter 02 KIRI 산학세미나
- Chapter 03 KIRI 보험법세미나
-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Chapter 1. KIRI 세미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KIRI 공동세미나(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2. 15(목) 10:00~17: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1부) :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2부) : 김소연(서울대학교 교수), 김민정(충남대학교 교수), 김경태(앨러배마대학교 교수), 한지형(서울대학교 박사), 조혜진(인천대학교 교수), 양혜경(건국대학교 교수)
- 좌장 : 최 철(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용국(예금보험공사 팀장), 김성숙(계명대학교 교수), 김종승(한국금융연수원교수), 빈기범(명지대학교 교수), 신동호(금융감독원 팀장),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4. 5(금) 14: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류건식(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송현종(상지대학교 교수),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이봉주(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진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 김영선(경희대학교 교수), 안상봉(KB골드라이프케어 대표), 우석문(신한라이프케어 대표)

###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5. 2(목)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김혜성(주국제손해사정 고문), 김석영(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민(원한재보험 전무)
- 좌장 : 정중영(동의대학교 교수)
- 토론 : 심정보(스위스리 전무), 장명조(삼성화재 상무),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홍정호(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Chapter 1. KIRI 세미나

### 『보험회사의 AI활용 현황과 이슈』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6. 4(화) 07:30~09:00, 조선히텔 라일락홀(2F)
- 발표 : 파비안 빈터 박사(Dr. Fabian Winter)  
뮌헨 리 그룹 최고 데이터 및 AI 책임자(Group Chief Data and AI Officer, Munich Re)

###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6. 20(목)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기조발표 : 최유삼(신용정보원 원장)
- 발표 : 김희웅(연세대학교 교수), 박희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이태열(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권병근(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장봉규(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정해석(보험개발원 부문장), 최혜미(캐롯손해보험 본부장)

### 『사회 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KIRI 공동학술대회(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한국보험법학회·한국보험계리사회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4. 8. 22(목) 14:00 ~ 2024. 8. 23(금) 12:00, 오크밸리리조트
- 기획주제 : 김해식(토론)
- 세션II 보험경제 : 조재일(발표, 토론)
- 세션IV 보험계리 : 노건엽(토론), 황현아(발표)
- 세션IV 연금II : 강성호(발표), 김경선(토론)
- 세션VI 보험과 리스크관리 : 강성호(토론), 김경선(발표)
- 세션VII 리스크관리 : 김석영(토론)
- 세션VIII 보험 및 연금제도 : 조재린(좌장), 김규동(토론), 이승준(토론)



## Chapter 1. KIRI 세미나

### 『인슈어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전망』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 보험세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8. 29(목) 14:30~15: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1F)
- 발표 : 고석태(마인즈앤컴퍼니 대표), 최홍준(업스테이지 부사장)
- 좌장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토론 : 손재희(보험연구원 실장), 양경용(삼성생명 센터장), 이진호(캐롯손해보험 본부장)

###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과 이슈』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9. 25(수)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신은철(KAIST 교수), 손재희(보험연구원 실장)
- 좌장 :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덕규(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진혁(미래에셋생명 상무), 황순주(KDI 연구위원)

###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 : 2024. 10. 10(목) 07:20~09:00
- 장소 : 콘래드호텔 스튜디오1+2+3홀(6F)
- 발표 1 : 2025년 보험산업 전망  
황인창(보험연구원 실장)
- 발표 2 : 2025년 보험산업 과제  
정성희(보험연구원 실장)



## Chapter 1. KIRI 세미나

###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0. 10(목) 14:00~17:0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F)
- 발표(1부) : 황인창(보험연구원 실장), 정성희(보험연구원 실장)
- 발표(2부) :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동겸(보험연구원 실장)
- 좌장 : 민세진(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신현화(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남훈(보험GA협회 상무),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천승환(생명보험협회 상무)

###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KIRI 공동세미나(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0. 21(월) 14:00~17:3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F)
- 발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 성주호(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박정우(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신승희(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이다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이상전(고용노동부 사무관), 임예진(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원석(동아대학교 교수)

### 『생명보험산업의 위기와 혁신』

KIRI 공동세미나(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5:00~17: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김석영(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중호(맥킨지컨설팅 매니저),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영철(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장우(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



## Chapter 1. KIRI 세미나

### 『보건복지 협력: 고난을 품은 희망의 길』

KIRI 공동세미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6개 기관 공동주최)



- 보험연구원 세션 주제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일시·장소 : 2024. 11. 1(금) 09:00 ~ 2024. 11. 2(토) 12: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발표 : 김경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재일(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김해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박해령(고려대학교), 송찬의(고려대학교)

### 『초고령사회, 보험의 역할』

KIRI 공동세미나(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4. 11. 12(화) 09:00~15:30, 콘래드호텔 파크볼룸(5F)
- 기조연설 : 이시다 시게노리(일본 간사이대 정책학과 교수, 일본보험학회회장)
- 강연(오전) : 홍석철(서울대학교 교수), 송윤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창국(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승봉(한국 MDRT협회장)
- 좌장(오전) : 이봉주(경희대학교 교수)
- 강연(오후) : 야마자키 마야(일본 前 중의원), 질리언 모나한(FCCA 공동창업자), 이관옥(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좌장(오후)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보험사 자산배분 패러다임의 전환』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1. 22(금) 07:20~08:50, 더플라자호텔 메이플룸(4F)
- 기조연설(Online) : Marc Rowan(CEO, Apollo Global Management)
- 발표 : Jim Zelter(Co-President, Apollo Global Management)



## Chapter 1. KIRI 세미나

###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2. 5(목) 14:00~16:00, 코리안리 대강당(12F)
- 발표 : 이주열(남서울대학교 교수), 김경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석승훈(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고영호(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권병근(손해보험협회 이사),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민영보험의 발달장애 포용성 확대 방안』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2. 11(수)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박민현(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영(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민세진(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오영표(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윤상용(충북대학교 교수), 이종빈(아주재활의학과의원 대표원장)

###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KIRI 공동세미나(한국FP학회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4. 12. 12(목) 14:00~16:5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기초발표 : 전요섭(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 발표 : 변혜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규림(삼정KPMG 경제연구원 상무)
- 좌장 : 박광수(동덕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소연(서울대학교 교수), 김재영(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김정은(스몰티켓 대표), 김태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보험약관 해석방법론에 대한 재고찰』

행사명 : 제45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 25(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발표 : 최승재(세종대학교 교수)
- 토론 : 안재홍(KB손해보험 변호사), 양기진(전북대학교 교수), 양승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경영자가 말한다』

행사명 : 제46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2. 29(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 민기식(KB생명보험 前부회장)
- 토론 : 김해식(보험연구원 실장), 성주호(경희대학교 교수), 전용범(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 『연금,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

행사명 : 제47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3. 22(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발표 : 장 철(노팅엄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성호(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균(금융감독원 책임전문감독관), 최두호(교보생명 파트장), 최양호(한양대학교 교수)

### 『시를 활용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행사명 : 제48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4. 19(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발표 : 장봉규(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토론 : 구기환(크라프트테크놀로지스 팀장), 김규동(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용(KB증권 이사)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AI Technology and Training』

행사명 : 제49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6. 4(화)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발표 : Fabian Winter(Munich Re 박사)
- 토론 : 손재희(보험연구원 실장),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

행사명 : 제50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6. 27(목)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발표 :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고은경(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민세진(동국대학교 교수), 최성일(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계약 재매입 가치평가와 거래시 고려사항』

행사명 : 제51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7. 26(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발표 : 정원석(동아대학교 교수)
- 토론 : 노건엽(보험연구원 실장), 박항남(교보생명 팀장), 지광운(군산대학교 교수), 최형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행사명 : 제5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9. 26(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발표 : 최명영(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팀장)
- 토론 : 김정민(원한재보험 부장), 정범진(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프로), 천지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행사명 : 제5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0. 31(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토론 : 백천우(코리안리재보험 박사), 이민환(인하대학교 교수), 이승준(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회사 내부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행사명 : 제5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1. 22(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발표 : 하홍준(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 : 노건엽(보험연구원 실장), 이영지(삼성화재 파트장), 최판균(삼일회계법인 이사)





## Chapter 3. KIRI 보험법세미나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행사명 : 제11회 KIRI 보험법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5. 16(목)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양승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오창영(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한창훈(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황은아(삼성생명 준법감시인)

###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행사명 : 제12회 KIRI 보험법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7. 23(화)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
- 발표 : 하태현(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토론 : 김경렬(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부장), 백영화(보험연구원 실장)

### 『보험업법 개정 필요 사항』

행사명 : 제13회 KIRI 보험법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4. 11. 26(화)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사회 : 백영화(보험연구원 실장)
- 발표 : 오창영(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토론 : 김동욱(AIA생명 본부장), 김영은(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안종민(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승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정명(생명보험협회 변호사)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성주호 편집위원장(경희대 교수)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는 박희우 연구위원이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을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1호 (2024년 2월)

제목	저자
Study on Short-Term Small-Value Insurance Sales of Big Tech Platform and Consumer Utility: Focused on the Self-Preferencing of the Platform	김성균, 김규동
공급자 경쟁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민인식
퇴직연금 소득대체를 추정	정원석, 강성호
퇴직연금 수수료를 결정요인 분석: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송인욱, 이경희

####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2호 (2024년 5월)

제목	저자
정책성농업보험의 WTO 농업협정 정합성 분석 및 운영 방안	최창희
공급자 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송윤아
IFRS17하에서 손실부담계약을 고려한 일반손해보험의 위험조정 측정	노건엽
주거래은행이 차입기업의 퇴직연금적립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

####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3호 (2024년 8월)

제목	저자
KOSPI200 지수선물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익원천	우민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규제 방향에 대한 연구	최자유
은퇴 기간의 예상과 실제	김대환, 정창연, 이재희, 남기훈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경원

####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4호 (2024년 11월)

제목	저자
보험사 평판위험과 주가에 대한 연구	이현복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공시 규제 도입 방안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의 규제를 시작으로-	최자유
공적연금 일원화에 대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최경진, 전희주
금융포용 향상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원신, 이성엽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2. 작업반/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개혁회의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 각종 작업반/회의

작업반·회의 명	주최	
보험개혁회의 TF	상품구조반	금융위원회
	신회계제도반	
	판매채널1반	
	판매채널2반	
	영업관행반	
	실손보험반	
	미래대비반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녹색금융 추진 TF	금융위원회	
인구변화 TF	금융위원회	
기후 TF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TF	금융위원회	
금소법상 제재(광고규제, 과징금) TF	금융위원회	
보험권 건전경쟁 질서 확립 TF	금융위원회	
표준 위기상황분석 TF	금융감독원	
K-ICS 내부모형 도입준비 TF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TF	금융감독원	
고령자 요양 및 주거 전문가 자문	기획재정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 화재 재난원인조사반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	행정안전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TF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제도 개선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현황 조사반	개인정보위원회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3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포럼, 패널, 자문 등에 참여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 정책(감독)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체포상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회	금융위원회
공적심사 &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옴브즈만 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금융감독원
채권정리위원회 전원위원회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소위원회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험관리 분과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우정사업본부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요율제 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경영위험심사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보험개발원
특허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술보증기금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기술평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성경제연구 편집위원회	한국여성경제학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임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포럼/패널/자문

위원회 명	주최
자율주행자동차 미래포럼	국토교통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전문가협의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자율주행차보험제도 협의체	한국교통안전공단
ICT 국민점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제정책 자문	한국개발연구원
미래금융포럼	삼성글로벌리서치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4 언론기고

#### 2024년 1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새로운 균형과 제도' 시험대에 선 보험산업	한국보험신문	최 원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과 과제	동아일보	원 장
출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	헤럴드경제	이태열
초장기 국채선물 등장...보험산업 효율성 확대 '기대'	이데일리	노건엽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아주경제	전용식
8년 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머니투데이	백영화
보험소비자 보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헤럴드경제	김해식

#### 2024년 2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인구절벽시대 실버·보험산업의 역할	대한금융신문	강성호
치매에 걸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매일경제	원 장
생명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	아주경제	임 준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헤럴드경제	부원장
AI 시대, 보험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보험신문	손재희

#### 2024년 3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	서울경제	백영화
벼랑 끝 연금 개혁, 물러설 곳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원 장
다시 읽는 개미와 베팅이 이야기	헤럴드경제	김석영
디지털, 보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아시아투데이	손재희
기후변화와 건강권	헤럴드경제	조재린

#### 2024년 4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뉴노멀 시즌2와 구조개혁	머니투데이	윤성훈
우리나라에서 가정이 존속할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	이태열
복합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	아주경제	변혜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금융소외	아시아투데이	오병국



2024  
연차보고서

# 2024년 일반현황

- Chapter 01 경영비전
- Chapter 02 연혁
- Chapter 0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Chapter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 Chapter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6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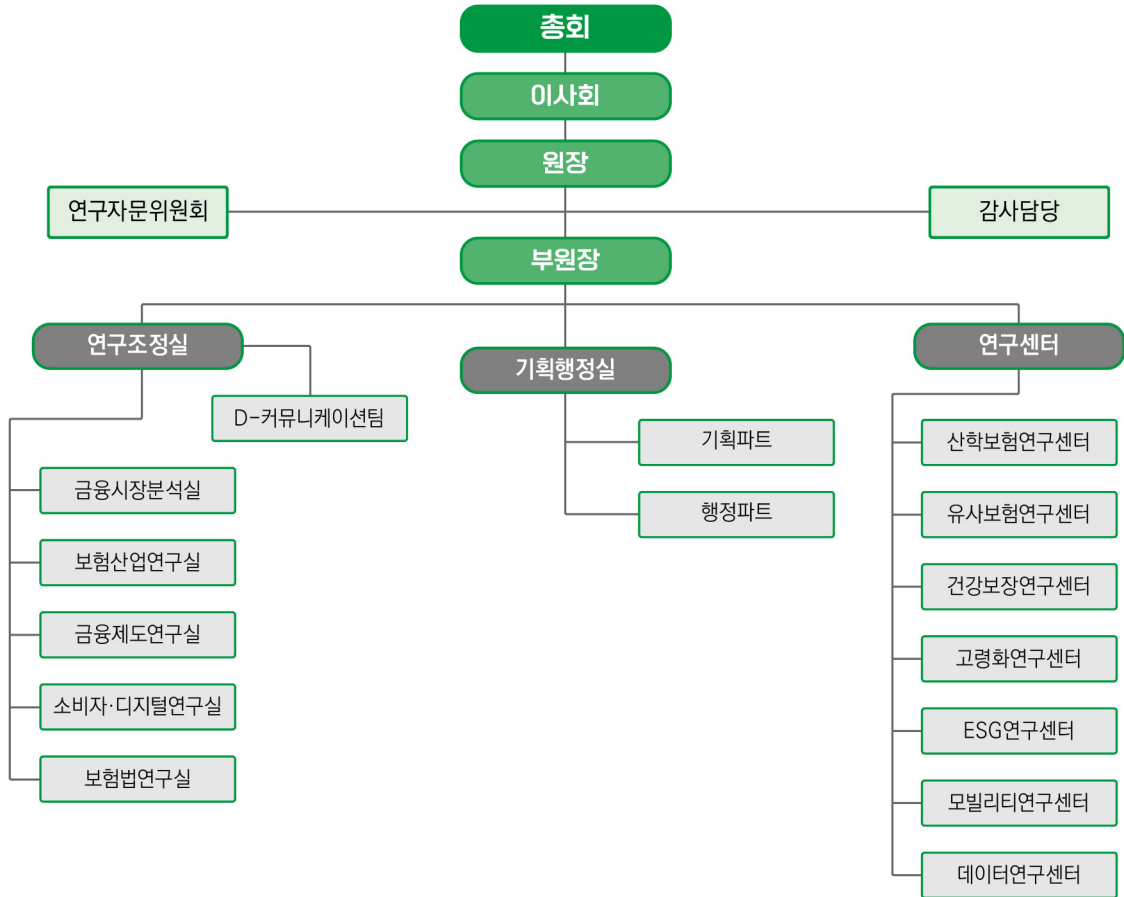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2021년 12월	제16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2023년 1월	6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 Chapter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 조직도



### 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1개 사원사, 손해보험회사 18개 사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건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24년에는 정기총회 포함 총 4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 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는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9년부터는 연구자문위원회를 연구사업계획과 운영을 자문하는 ‘연구분과’와 보험산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발전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2024년 11월에 연구분과회의와 발전분과회의를 1회씩 개최하였다.

#### 연구자문위원회 연구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심중보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
정세창	홍익대 교수	박소정	서울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철편	경희대 교수
장연주	충북대 교수	이기형	(전)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동아대 교수	류건식	(전)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	민기식	(전)KB라이프생명 부회장

#### 연구자문위원회 발전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한	(전)KCB(주) 상임감사
김영대	법무법인(유한) 클래스 대표변호사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
양충모	전북대 초빙교수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준	연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 5 임직원 현황

(2024.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7	23	2	11	-	10	74

## 2024 연차보고서

발 행 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정성희  
편 집 위 원 김형진  
제 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발 행 일 2025. 2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